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 대한 성찰

-교육학적 입장에서

논문초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에 대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교육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충실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적 입장에서 ‘예정론’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이다. 는 말이 옳은 것인가? 성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으로 해석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 하는가? 둘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셋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구상에서 죄악들이 발생하게 버려두는가? 넷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으로 보는 ‘예정론’ 보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는 ‘자유의지론’ 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교육학적 입장에서 볼 때 ‘예정론’ 으로 해석할 때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예정론’ 의 말씀도 ‘자유의지론’ 의 말씀도 있다. 다만 ‘예정론’ 대 ‘자유의지론’ 의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하나님의 뜻, 예정론, 자유의지론, 하나님의 관점

I. 들어가며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 종교는 기성 종교와 비슷하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의 뜻으로 쓰인다. 사이비 종교는 건전하지 않은 종교(주로 종교라고 하지만 사회적 물의나 법적 문제 등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단(異端)’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신앙, 종교 또는 종파를 의미하나, 최근에는 이단과 사이비를 흔히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종합편성 채널 중의 하나인 OCN에서 2017년 8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영 되었던 ‘구해줘’ 프로그램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보여주었다. 물론 방송에서는 특정 종교를 지칭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방송내용을 보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내용은 어느 날 골목에서 마주친 한 여자로부터 ‘구해줘’라는 말을 듣게 된 네 명의 백수청년들이 한 여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본격 사이비 종교의 스릴러 드라마이다.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과 유사한 수많은 기독교 사이비, 이단 단체가 존재한다. 어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일은 주로 교단이 정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통 교리와 어긋난 가르침을 설파하는 곳을 이단으로 규정한다.

현대종교가 정리한 총회 보고서에서는 단일 단체 중 이단으로 제일 많이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전도협회’(다락방)였다. 다락방은 총 11회 이단 관련 결의로 제재를 받았다. 변승우 목사의 ‘큰믿음교회’(현 사랑하는교회), 통일교, 신천지, 인터콥, 구원파가 뒤를 이었다(뉴스앤조이, 2017. 3. 26.). 이 외에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들은 무수히 많다.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개인, 사회, 국가에 저지른 해악들은 너무나 많다. 한 개인의 파괴는 물론 가정파탄과, 사회 구조, 사회체제의 파괴 나아가 국가의 존망까지 위태롭게 만든다. 잘못된 종교는 오히려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올바른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발언 중 하나는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은 2011년 온 누리 교회 양재 캠퍼스에서 열린 수요 여성 예배강연에서 조선인의 특징은 게으른 것이라고 하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발언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총리 후보자에서 결국 낙마하였다(한겨레, 2014. 6. 11). 다른 하나는 서울 강동구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목사는 2014년 5월 11일 주일예배에서 ‘믿음의 3요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던 중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키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기독교한국신문, 2014. 5. 29). 사이비가 아닌 대형교회 목사와 총리 후보인 장로의 발언이다. 이외에도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 교리에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논쟁이다. 이 두 교리는 영원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두 교리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

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바란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골로새서 1: 9-10).”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바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적 입장에서 ‘예정론’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는 말이 바람직한 것인가? 성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으로 해석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둘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셋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구상에서 죄악들이 발생하게 버려두는가?

넷째,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II. 교육학적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으로 해석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인살라’ 이다. 인살라(아랍어: ان شاء الله)는 ‘알라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기독교에서도 ‘예정론’을 믿는 경우 이슬람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문창극의 발언이나 김삼환 목사의 발언은 ‘예정론’을 믿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대중들은 분노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발언은 도덕적 무책임 또는 비도덕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배를 침몰한 것도,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 하십시오. 주님이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빨리 보고 싶어서 데려 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라고 할 경우 하나님이 배를 침몰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온갖 선한 일 뿐만 아니라 온갖 사악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

악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죄와 악을 가득 품은 분으로 만든다.

둘째,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된 일도 잘 못된 일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배를 침몰하게 만든 사람도,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강간을 한 것도, 내가 살인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악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다.

셋째, 인간에게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 내가 살인을 한 것도 내가 강간을 한 것도, 내가 사고를 친 것도 모두 나에게서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를 거역할 수 없으므로 나에게서는 책임이 없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줄일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운명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도 필요 없다. 일제치하도, 해방도, 북한 정권을 세운 것도, 1980년대 5, 18 민주화 운동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도, 911 테러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의 80%인 600만 명을 죽인 것도, 킬링필드도, 사기, 강간, 방화, 폭력, 살인 등 모든 죄악이 있는 곳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없애기 위한 인간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 할 뿐이다.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 자체도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애 쓸 필요가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애를 많이 쓰던 그냥 편하게 내 버려두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 없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칠 경우 인간을 운명론적 결정론으로 빠지게 만든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대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의 운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결정된 운명을 따라야 한다.

다섯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조언을 듣지 않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 특별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듣지 않게 한다. 나는 인간이 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인간에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논리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 1-4).”

이런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목사나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회롱이나 성폭력, 공금횡령을 한 목회자도, 사회에서 비난 받는 목회자도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여 뻔뻔하게 설교를 하거나 자신의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설교를 한다.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기독교 방송에 단골로 등장한다. 그러나 잘 못 했을 경우에 엄하게 질책하는 말씀도 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누가복음 3:7-9).”

여섯째,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예정론’을 받아들일 경우 무의식 속에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가만있어라’, ‘도전하지 말고 순응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등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 무력감을 심어준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한다.

일곱째,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 ‘예정론’은 대세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질서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목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창의적인 정신, 개척적인 정신, 도전적인 정신, 자아실현 등을 구현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덟째,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 시킨다. 예를 들면 목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장로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경우 어느 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갈등 상황에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경우 분명한 것은 한 쪽은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면 ‘예정론’은 버려야 할 이론이다.

아홉째,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악도 일으킨다는 해석으로 인하여,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믿는 성도도 믿지 않는 성도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독선적 교회 운영, 직분자들의 부정과 비리, 헌금 또는 십일조 강요, 예배 강요, 구복주의, 성장주의, 성직주의, 지나친 간섭, 신앙 갈등, 사생활 침해, 세속적 유혹, 틀에 박힌 교회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에 따라 별도의 절실한 이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단기간 내에 가나안(안나가) 성도를 많이 양산한 데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원인이 목사의 품성과 자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NEWSM, 2015. 4. 15).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교회를 떠나는 한 이유로 꼽혔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성경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기에, 한두 구절로 특정 주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현대의 상황과 성경의 상황을 고려하는 통전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현재 한국 교회에서 대학생 신자의 비율이 3%대이고 청소년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성인이 되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아이굿뉴스, 2014. 9.23).

사이비,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유의지론 보다는 예정론에 가까운 설교들이 넘쳐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교하는 내용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 5-6).”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면 이 정도의 벌이 있다.

Ⅲ. 교육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 15-17).”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선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린도 전서 13: 1-8).”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 39).” 정옥배 역(2016)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보았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34).”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배려이다.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흔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물론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입장,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도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셋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 22-23).” 하나님의 뜻은 증오가 아닌 사랑하는 곳에, 슬픔이 아닌 기쁨이 있는 곳에, 전쟁이 아닌 화평이 있는 곳에, 성급한 곳이 아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곳에,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 아닌 자비가 있는 곳에, 죄와 악이 아닌 선함이 있는 곳에, 배신이 아닌 충성이 있는 곳에, 분노가 아닌 온유함이 있는 곳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절제가 있는 곳에 있다.

넷째, 주기도문을 보면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

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태복음 6: 9-13).”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다. 전쟁, 기아, 질병, 강간, 사기, 폭력, 침략 이런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여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고, 위안부 소녀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곳에 있다. 공의와 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처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 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등 여러 사건 상황들을 나와 연관 맺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렵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한다. 이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성령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IV. ‘하나님의 뜻’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구 상에서 죄악들이 발생하게 버려두는가?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세월호와 같은 사건과,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과 전쟁과 질병들을 방치하시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을 왜 그냥 바라만 보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가? 에 대한 의문이 든다. 모든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변신론적 입장이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다. 악의 존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은 시련을 통해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여 천국을 약속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 셋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넷째,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다. 하나님은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피를 흘리신다. 인간을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독재자가 아니다. 자신의 전적인 주권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인간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노아의 방주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세기 6장: 6-7).” 인간들의 죄악을 벌하기 위한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인간들이 사망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지은 사람까지 벌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기준을 세워서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휘두르지 않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전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둘째, 상황적인 뜻, 셋째, 궁극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몰하는 배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이용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야고보서 1:12-18).”

이러한 죄악들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월호도 전쟁도 일으킨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한 말에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 들어온 악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죄와 악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타락한 악한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다. 부조리한 세상, 악한 세상, 오염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불의한 일들이 파생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서진희 역(2014)는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령 충만, 순결, 순종, 고난을 받으라, 뭐든지 다하라 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자신의 그릇된 의지 때문이다. 의지를 잘못 이끄는 것은 의지 자체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위의 사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선도 악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든 사악한 범죄, 죄악들이 발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최소화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모든 죄악들이 일어난다.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 자유의지는 잘 못 사용할 때 악의 원인이 되지만 인간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법은 첫째, ‘목적’으로 사랑해 ‘향유’해야 할 것들과 ‘수단’으로 사랑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목적으로 사용하면 죄가 된다. 둘째, 인간의 영혼이 ‘우월한 본성’인 이성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열등한 본성’인 감정에 영향 받지 않음으로써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간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목적으로 사랑해야 할 가치 보다 수단으로 사랑해야 할 가치를 더 중요시하여 발생하였다. 인간의 생명이나 목숨, 인류의 평화와 같은 목적 가치보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 증오와 같은 수단 가치를 더 중요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전쟁, 살인, 대 학살 과 같은 나쁜 것이라고 알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목적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

‘예정론’이나 ‘자유지론’이나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한다. 예정론의 경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베드로 전서 1: 20).”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에베소서 1: 5-6).”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를 보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

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 15-17).” 여기서 보면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게 하였다. 선택권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먹든 먹지 않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신명기 28: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 복을 선택하든 화를 선택하든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인간의 자유의지이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와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와 자유의지론에서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이 정도로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예정론’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자유의지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분명하다.

V.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위의 글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해석의 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시기도 하다.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한복음 1: 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21: 31-33).”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9: 28-29).”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명기 6: 5-9).”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내가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조종 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선과 악 중에 자신이 스스로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힘이 있다.

둘째, 기도 생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죽은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9: 28-2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태복음 14: 19-21).”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면 기도는 필수이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찬양 받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편 146: 1-2).”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라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편 113: 1-3).”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넘쳐난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수적이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삶이 바뀌어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 실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 하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누가복음 8: 10-15).”

다섯째,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완성한 세상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셨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적응기간이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간섭하시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 중 최소한의 능력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관여하시게 된다. 그 때 까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저지르는 죄와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짓는 죄와 악에 대하여 일일이 따지시며 심판한다고 까지 말씀 하신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큰 틀을 짜면서도, 그 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 31).”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1882-1945)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온갖 죄와 악한 영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뜻을 이루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갖 죄와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죄와 악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공의로 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인으로서 자유 함을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 31-32).”

Ⅶ. 나오며

성경에는 ‘예정론’이나 ‘자유지론’을 증거 하는 말씀이 모두 있다.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예정론 대 자유지론, 선과 악, 과학과 종교, 유전과 환경 등으로 다루는 것은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학은 본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관계되는 방법들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슈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는 해석학을 ‘다른 사람의 담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담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방법의 경우 그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 방법은 감정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론’의 말씀이나 ‘자유지론’의 말씀은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의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서 감정입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성경 전체가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예정론’ 보다는 ‘자유지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인체의 중심은 어디인가? 아픈 곳이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 신경이 발가락에 가 있다. 무릎이 아프면 온 신경이 무릎에 가 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한 구절을 따 와서 해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정론도 자유지론도 성경말씀에 두고 있다. 어느 한 이론이 절

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완성된 단계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십자수를 생각하면 알기 쉽다. 십자수에 수를 놓을 때 위에는 아름다운 모양이 만들어 지지만 아래에는 지저분한 실들이 생긴다.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 무거운 도덕적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진희 역 (2014). **하나님의 뜻**, 존 맥아더(2014). *God's will*. 서울: 베드로서원.
- [Seo, J. H., (2014). *God's will*, John MacArthur (2014). *God's will*. Seoul: Peter Seowon.]
- 윤종석 역 (2017). **하나님의 뜻**, 제럴드 L., 시처(2017). *God's will*. 서울: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 [Yoon, J. S., (2017). *God's will*, Gerald L., Sitchere (2017). *God's will*. Seoul: Korean Bible Union Mission.]
- 정옥배 역 (2016).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팩커(2016). *Knowledge of God*.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Jeong, O. B., (2016). *Knowledge of God*, James Packer (2016). *Knowledge of God*. Seoul: Korea Christian Student Association Press.]
- 기독교 한국 신문 2014. 8. 9일자. 김삼환 목사 “꽃다운 애들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 준 것.”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1> (검색일 2017.8.9.)
- [김삼환 목사 “꽃다운 애들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 준 것”, 기독교 한국 신문 (2017.8.9.) Retrieved from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1> (2014.5.29.)]
- 뉴스 앤 조이 2017. 3. 26일자.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이단 결의한 곳은?”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3>. (검색일 2017.8.8.)
-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이단 결의한 곳은?”, 뉴스 앤 조이 (2017.8.8.). Retrieved from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3> (2017.3.26.)]
- 아이 굿 뉴스 2014. 9. 23일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섯 가지 이유?”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59>. (검색일 2017. 8.7)
-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섯 가지 이유?”, 아이 굿 뉴스 (2017.8.7.). Retrieved from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59> (2014.9.23.)]
- 한겨레 2014. 6. 11일자. 문창극 “일제 식민지배·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2000.html. (검색일 2017. 8.10)
- [문창극 “일제 식민지배·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 한겨레 (2017.08.10.).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2000.html (2014.6.11.)]
- NEWSM 2015. 4. 15일자. “교회가 요지부동이니 교인이 떠난다.”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4>. (검색일 2017.7.2.)
- [“교회가 요지부동이니 교인이 떠난다”, NEWSM (2017.07.2.). Retrieved from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4> (2015.4.15.)]

ABSTRACT

Is Everything the Will of God?

- Reflection from pedagogical standpoint

Is everything the will of God? I examined this question from a pedagogical standpoint, centered on the Bible as my primary source. It is not easy to interpret the Bible. Is the way everything is the will of God, does it reflect his intentions?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is. This study reflects on this question.

The research problem pursue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is as follows. First, what happens when the pedagogical standpoint interprets everything as the will of God? Second, how should we interpret the concept of the “will of God” from a pedagogical standpoint? Third, since there is an omnipotent God (even though it is not that everything on earth is “the will of God” from the pedagogical standpoint), why is there crime on earth? Fourth, we examined what we should do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from a pedagogical standpoint.

In conclusion, it seems desirable to interpret the Bible as advocating free will and holding the position that not everything is God’s will rather than interpreting it as a supporting predestination. This is because there are negative aspects to human beings and their society that interfere with us interpreting the world as subject to predestination. In the Bible, the words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both appear. However, there is a dichotomy between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but it is necessary to try to interpret the Bible from God’s point of view.

key words : the will of God, predestination, free will, standpoint of God.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 확인함.”